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21일, 9월 후원미사는 18일, 10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8,447,317	전월이월금	936,185
지 로	2,551,650	우리은행	3,721,982
국민은행	4,569,000	하나은행	1,316,000
조흥은행	115,000	신한은행	1,190,000
외환은행	527,500	제일은행	195,000
농 협	1,510,000	기업은행	510,000
우 체 국	40,000	지정기탁	550,000
		교구보조	1,905,00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4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0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55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7,575,000	잔액(이월금)	872,31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7 / 제13호

펴낸날 2017. 7.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여러분은 혹시 게스트 하우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동창신부와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지인의 초대로 다른 숙소를 잡지 않고 그곳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주변의 자연풍광을 즐기고 저녁이면 같은 숙소에서 숙박하는 낯선이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이나 콘도와는 달리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모두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들과의 만남, 어색함도 잠시 금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공통분모만으로 편안한 대화와 웃음이 이어집니다.

첫날 만난 친구들은 20살내기 남자 녀석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한 동네친구들이 우정여행을 왔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이성친구와 교제해보지 못했다는 한 친구의 말에 함께 있던 아재들의 조언들이 쏟아집니다. 또 한 친구는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다들 고덕이며 각자의 소중한 경험들을 하나둘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모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가진 것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좋은 직업이 있건 아니면 백수이건, 이곳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면 그만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공사는 추억이야기도 좋지만 나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낯선 이들과의 대화 역시 참 맛깔납니다.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미사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각자의 언어로 독서를 봉독하고 성가를 부르는 장면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들이 내는 소리와 억양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서투게 하던 평상시의 모습과 달리 유창하게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경탄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어떠한 범주로도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고유한 다름이 있다 라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우리들을 규정하고 있고, 범주지어 놓은 경계들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가의 범주, 인종의 범주, 성별이나 여타 우리들을 수식하는 설명들을 자유롭게 넘나들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닮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묵상해봅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날의 드리워진 그늘과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일상의 여정속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는 매해 6월에 독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지난 6월 11일에 반포 한강시 민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사(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와 각 지역별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 공동 미사집전)와 전통 의상 행진과 공연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2,000여 명의 필리핀 출신 이주민이 참여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지역공동체 대항으로 5월부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FIFA 랭킹 136위의 축구 약소국이지만 그 열정만큼은 유럽 어느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국을 떠난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은 축구대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경기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함께 미사하고 축구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식*

이주사목위원회와 (사)서울가톨릭이주민센터 임직원 10여명이 지난 7월 3~5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사목방향(2018년 사목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목교서의 실천방향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 보다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로 직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체험학습(전쟁기념관)

▲ 수녀님과 학습

▲ 미사 후 축복

문화알림

ABOUT Nepal 네팔*



- 수도 / 카트만두
- 종교 / 불힌도교(87%), 불교(8%), 이슬람교(4%)
- 기후 / 아열대 몬순기후
- 인구 / 약 2,903만명(세계 45위)
- 기념일

- 1월 신년(1일)
- 2월 민주주의의 날(19일)
마하 시바 라트리(23일)
로싸(26~28일)¹⁾
- 3월 파구축제(10일)²⁾
고데 자트라(26일)
- 4월 네팔 신년(14일)
- 5월 석가탄신일(9일)
- 8월 자니 푸르나이마(5일)
이 자트라(6일)
티즈(23일)³⁾
- 9월 인드라 자트라(3일)
- 10월 더사인(3일)⁴⁾
- 11월 헌법의 날(9일)

네팔은 네팔 신년, 로사르, 신년 총 3개의 신년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 네팔 신년은 네팔달력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로사르는 티베트 신년 축제를 의미한다.

한국 내 캄보디아 이주민 통계 *출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총 597,783명 중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는 30,014명(남자 28,187명, 여자 1,827명)으로 5%를 차지하며,

국민의 배우자 체류 외국인인 총 152,374명 중 네팔 출신은 878명(남자 123명, 여자 755명)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로싸(2월 26~28일)

티베트계 유민들의 신년 축제로 불교 승려가 축복을 내리는 의식이 정오경부터 보드나트와 스와얌부나트 사원 스투파에서 펼쳐진다. 이 날은 가족구성원 전원이 함께 하는 중요한 가족행사이기도 하다. 집이나 길에 한 해 행운을 기원하는 색색의 깃발을 꽂고 짬바(보릿가루)를 허공에 뿌리면서 새해맞이를 한다.

2) 파구축제(3월 10일)

네팔력 파구달이 시작되는 첫날로 추위와 더불어 묵은 해를 보내고 따뜻한 봄 날씨와 더불어 새해를 설계하는 일종의 송구영신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색색의 가루나, 색깔을 들인 물을 풍선 안에 담아 서로에게 던지며 새봄을 맞는다. 계절의 여왕 봄을 맞아 색 가루로 물들게 된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몸은 깨끗이 닦아 자연의 생기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3) 티즈 (Teej)(8월 23일)

여성들에게 더욱 특별한 축제로 이 날은 여성만 휴무로 결혼한 여성은 친정으로 돌아온다. 강에서 신성한 물로 하루 종일 목욕을 하며 축제를 즐긴다. 파슈파티나트 힌두사원의 입구 등 네팔 전 지역에서 이마에 티카를 바르고, 화려한 빛깔의 사리를 입어 치장한 여인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남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이 날 하루 단식을 한다. 미혼 여성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원하며 축제를 즐긴다.

4) 더사인(10월 3일)

네팔 최대 축제로 15일 동안 계속되며 축제의 주요 행사가 벌어지는 9일간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휴가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동물들이 공양물로 희생된다. 7일째에는 더르바르 광장의 왕궁에서부터 고적대가 시가를 행진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9일째에는 더르바르 광장 뒤편 정원에서 정오경에 많은 염소와 물소가 희생물로 바쳐진다. 전국의 여신을 모시는 사원에서 비슷한 희생제를 올리기도 하며, 네팔의 모든 가정에서 큰 고기 잔치가 벌어진다. 10일째에는 이마에 쌀에 붉은 염료를 섞어 만든 티카를 서로 이마에 붙여주며 복을 빈다. 또 이 날만 특별히 일반 시민에게 왕궁이 오픈된다. 남성은 왕에게, 여성은 여왕에게 티카를 받을 수 있다.